

목어

두 친구 이야기



한 마을에서 자란 청년 두 명은 친구로서 사이 좋게 지냈지만 성격은 서로 달랐다. 한 친구가 비 오는 날이 분위기가 좋고 좋다고 하면, 다른 친구는 구름구름하고 짜증난다며 싫어했다.

한 친구는 조건을 별로 따지지 않고 수수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평범하게 지냈지만 다른 친구는 얼골이 예뻐, 몸매, 성격과 재산 등 모든 면이 완벽하게 갖춰진 여인이 아니면 결혼할 수 없다고 했다.

수수한 여인을 만난 친구는 아들 딸 6남매를 두어 시집, 장가보내는 재미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옛 친구를 만났다. "그래, 결혼은 했는가? 아이들은 몇이나 두고?" 친구가 힘없이 대답했다.

"아니, 아이는 무슨, 결혼도 못했는데." 친구에게 다시 물었다. "완벽한 여인이 그렇게도 없더라 말인가? 한 명도 못 만났어?" 친구는 역시 힘없이 대답했다.

"아니, 딱 한 명, 기가 막히게 완벽한 여인을 만났었지." 친구에게 중주먹을 들이대듯 물었다.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했어, 여태까지?" 친구는 더욱 힘없이 대답했다.

"응, 그게 말이야, 그녀도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다는군." 세상에 완벽한 남자, 무오류의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한 남자, 여자가 어디 섞여서 같이 살려고 하겠는가? 서로에게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로 가꿔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일이다.

법현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승려학생 확대 전공제한 철폐” “석좌교수제 도입 등 교원 확충”

‘동국대 불교대학 발전’ 첫 공청회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위기론이 대두하고 있는 동국대 불교대학 발전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대학 교수, 학과 및 종단 관계자들은 5일 동국대 다산관 세미나실에서 95년 동국대 역사상 처음으로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불교대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불교대학 교수 18명으로 구성된 불교대학 발전연구위원회는 △학부발전 연구방안 △교과과정 연구방안 △교수 및 연구기관 진흥방안 △학과 및 전문대학원 신설방안을 중심으로 불교대학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학과 및 종단 관계자들은 ‘불교대학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불교대학 위기의 원인에 대한 인식 등 몇몇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했다.

이 날 발전연구위원회에서 발표한 발전방안은 학부제와 전과제도 시행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불교대학의 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호성 인도철학과 교수는 ‘학부발전 연구방안’에서 ‘불교대학 학부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하나는 전과제도로 말미암은 학생 수의 감소에 있다’며 승려학생 수를 늘리고 선학전공 제한 철폐, 추천인학제 확대, 일반 전형시 심층면접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표 불교학과 교수는 ‘교수 및 연구기관 진흥방안’에서 세계 수준의 불교학 교육 연구중심대학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교수의 책임강의시간을 줄이

고 석좌교수, 연구교수 등 다양한 교수제를 도입해 교수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교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불교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해 교내 불교 관련 연구를 통합하고 앞으로 5년간에 걸쳐 30억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하자고 말했다.

불교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종립대학으로서 특성화된 대학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경준 불교학과 교수는 “전문대학원 체제로 불교학의 응용분야와 불교계에서 요구하는 전문분야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불교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문제와 관련 교단과 교계에서 이들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교대학 학장 보광 스님은 “교과과정을 보완해서라도 졸업과 동시에 포

교사자격 정도는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동국대가 불교학의 산실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보다는 원칙 천명에 그쳤고, 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 부분에도 이견을 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박부권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 수 감소는 학부제 실시와 ‘실용화된 중시’라는 세태의 변화에 따라 일반 인문대학도 함께 겪는 문제인 만큼 ‘동국대’라는 큰 그림 속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를 대표해 참석한 장곡공주 감사 주지 스님은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기 위한 교수인력 확대, 불교문화중심연구센터(가칭) 설립, 30억 발전기금 조성 등 물량확대 중심의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단순한 제도개선이 나 물량 확대보다 자기정찰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a.com



◇5일 열린 ‘동국대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달라이 라마 방한 가능성

7월 중순 성사되려면

16일까지 비자발급 결정

달라이 라마가 과연 7월 중순 올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5월까지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와 6개월간에 걸친 물밑협상을 진행하며 방한 시기를 7월 중순으로 합의했음에도 최근 돌연 약속을 파기한 것은 내심 불허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달라이 라마 방한을 위해서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최소한 16일까지는 어떠한

확답없는 정부...속타는 준비위

일이 있어도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결국 방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교계의 여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한준비위는 1일 한승수 외무부 장관이 중국에서 방한을 시사한 듯한 내용을 흘린 것은 대중국 외교를 위해 정부가 달라이 라마 방한을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극소수 불교계인 사들이 달라이 라마의 방한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결국 방한 불허의 책임을 교계에 미루기 위한 계산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 박광서 상임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내세우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명분이 없어졌다. 중국이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며,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에도 지난 4월 달라이 라마가 다녀갔다”며 “대중국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정부가 굴욕외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달라이 라마는 방한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a.com

91~94년 출가자 필답고사 면제

승가고시 특례 적용 고시산림 참가 ‘통과’

조계종이 지난 5일 중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3급 승가고시 시행에 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승가고육 발전과 고시에 대한 스님들의 부담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고심한 측면이 역력하다.

통합종단 이후 올해 처음 실시되는 3급 승가고시는 승려의 자질 향상과 불교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였지만 출가 승려의 수행척도를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3급 승가고시를 거쳐야만 말사주지나 분사 4직, 중앙국장 등에 임용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고시 통과’라는 부담으로 인한 스님들의 반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내용을 보면 1991년 1월1일부터 1994년 12월31일 이전에 출가하고 사미니(계)의 구족계를 수지한 3급 승가고

시 대상자에게는 당초 계획했던 필답고사 방식이 아닌 연수교육 방식의 ‘고시산림’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고시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우선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례가 적용되는 셈이다. 또한 1991년 1월1일 이전의 출가자는 자연적으로 3급 승가고시를 이수한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95년 이전 출가자는 별 부담 없이 3급 승가고시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달리 제대로 된 방식의 3급 승가고시는 95년 1월 이후 출가자를 대상으로 2008년도에 시행된다. 이때부터는 고시산림과 필답고사가 병행되며, 응시자격기준도 4년 이상을 성당하고 종단에서 지칭하는 교육기관을 이수했거나, 박사과정 이상을 이수한 승려로 강화된다.

교육원은 3급 승가고시의 성패가 스님들의 인식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결국 올해 첫 시행에 스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3급 승가고시 정착의 분수령이 될 듯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계율해이 경고 “책임 물겠다”

정대 스님 ‘롭살롱’ 언급

조계종 중진스님 4인의 강남 롬살롱 출입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의 발언에 담긴 의미와 함께 이번 발언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대 스님은 5일 재가연대 박광서 상임공동대표 등과의 면담에서 계율해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3-4월 조계종 중진스님들의 비위를 담은 과문서가 나왔고, 이에 대해 총무원이 즉각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팽배했었다. 따라서 경고의 범위는 롬살롱 사건에 관련된 중진들을 한정할 것이기 보다는 포괄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경고 이상의 무게를 실었다고 보고 있다. 총무원 내의 한 국장 스님은 “원장스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

다.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단의 안정을 위해 2년간 참았다. 더 이상 참으면 참단이 우습게 된다”는 언급은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다. 정대 스님은 이날 면담에서 일부의 스님들이 호방부장 해임을 요구했다는 내용까지 공개적으로 밝혀 그 동안의 불편했던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정대 스님의 발언 가운데는 승가의 청정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도 있어 주목된다. 롬살롱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 그러면 불자들이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총회의원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 총회의원은 “롭살롱 사건은 사실 다소 과장되어 알려지고 있다”며 “신중하지 못한 말씀인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총회의원 스님은 “이 일로 종단이 어지러질까 걱정”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정성은 기자 swjung@buddhapa.com

Large advertisement for Samhwa Buddhist University (삼화불교대학) featuring recruitmen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Buddhist Studies, Korean Language, and Nursing. It includes details about enrollment, fees, and contact information.